

미농무성(USDA), 등급·인증·감사 기능 통합

미농무성(USDA) 농업유통부(AMS)에서는 산하 가축·종자 프로그램(팀)의 감사, 검토 및 준수에 해당하는 업무를 식육 등급 및 인증팀으로 통합한다고 발표하였다.

“금번 업무의 통합을 통해 AMS는 가축과 식육산업을 위한 마케팅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속 제공 가능하다”고 AMS의 관리자 Rayne Pegg이 말했다. 또한, “금번 합병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업계의 새로운 요구를 충족함으로써 혁신적인 가치창조 서비스를 증가시켜 두 팀과 프로그램 모두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강력히 믿는다”고 부연하였다.

재구조화된 조직은 등급·검증본부(the Grading and Verification (GV) Division)으로 Denver 주식회사에 본사를 두고 총책임자로 Larry R. Meadows를, 부 책임자로 Stephen H. Cave와 James L. Riva를, Stephen Cave는 금융, 관리와 인사를 관리하고 James Riva는 등급, 인증 및 감사 서비스를 맡게 된다.

생산자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공인받은 미농무성(USDA) 등급, 감사 및 인증 서비스에 의존하는 그들을 위해 새로운 GV본부로의 전환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

GV본부는 중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시장에 중단없이 제품 특성을 전하고 제품을 차별화해 나갈 것이다. GV본부는 고도로 숙련된 식육 품질평가사(Graders)를 통해 매년 20억 파운드 이상의 쇠고기와 108백만 파운드 이상의 양고기에 대해 공인받은 USDA의 등급을 제공한다. 또한, GV본부 인증 감사관은 매년 4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상업용 프로그램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증명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약 27억 달러 규모의 농산품 유통을 촉진한다.

[원본출처] www.ams.usda.gov/news

EU - 식육 및 기금을 포함하여 식품에 라벨부착 의무 확대

새로운 식품라벨 부착법이 시행된다. 최근 EU의 쇠고기는 전시할 때 라벨부착을 의무로 하는데, 이를 가금, 돼지 및 양고기까지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EU전역에서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에너지함량, 지방, 설탕, 소금함량 등이 표시된 표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계획에 따르면 영양적 데이터가 도표로 상품에 표기되며, 100g당 또는 100ml당 함량으로 표시된다. 이 법은 새로운 라벨부착으로 전환하기까지 기업에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현재는 쇠고기뿐만 아니라 신선과일, 채소, 어류, 올리브유, 벌꿀에 원산지표 표기해야 한다.

[원본출처] www.mealpoultry.com/news